

Acetone, 가격인상 정말 힘들다!

중소기업 많아 인상요인 반영 못해 ... Cumene 가동률도 저조

아세톤(Acetone) 오퍼가격이 벤젠(Benzene) 가격급등과 세계적인 가동률 하락으로 톤당 750달러까지 인상됐다.

아세톤은 페인트 용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국내에서는 금호P&B화학이 독점 생산하는 가운데 Mitsui물산이 수입해 공급하고 있다.

2004년 벤젠가격이 1/4분기에 FOB Korea 톤당 546달러로 2003년 1/4분기 대비 5.5%, 4/4분기 대비 12.3% 상승해 Cumene 공법으로 페놀 및 아세톤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기업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돼 저조한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아세톤 수입상은 “일본의 Cumene 생산기업들이 1/4분기에 폭등했던 벤젠가격을 2/4분기 공급제품 가격에 전가해야 하기 때문에 아세톤 오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Cumene 가동률 하락은 일본에 한정된 문제만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는데, 국내에 페놀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 Ineos 등도 원재료 수급상의 문제로 가동률이 하락했다.

아세톤 가격이 오른 또 다른 원인은 마이너 생산기업들의 트러블에 따른 것으로, 아시아에서 신증설을 계획했던 타이완 Foroms Plastics 등의 가동연기도 원료 수급상의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오퍼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국내 용제 시장에서는 가격상승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세톤 시장 관계자는 “페놀 수요기업들은 대기업으로 페놀가격 상승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아세톤 수요처들은 소규모이고 중간딜러가 많은 시장상황까지 겹쳐 가격인상이 어렵다”고 전했다.

금호P&B화학은 5월 아세톤 가격을 경인지역 도착도 기준 kg당 1150원을 목표하는 가운데 아세톤 수입상들은 1차 딜러 공급가격이 1000원 수준으로 목표가격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2004년 중국의 아세톤 수요가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라 페인트 등의 용제용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에 따른 건설경기 흐름에 따라 수요가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톤은 2월 이태리 Polymeri의 로딩포트 화재 및 Shell Europe 및 Ineos Europe이 2004년 벤젠 가격폭등으로 Operation을 조정해 유럽의 아세톤 자체공급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미국 공급물량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아시아 유입량이 줄어든 바 있다.

아세톤은 페놀의 부산물로 2003년 수요비중이 BPA 46.3%, MIBK 23.2%, 도료 및 페인트 16.6%, 제약 4.6% 및 기타 9.3% 사용됐다. <김동민 조사기자>

<화학저널 2004/05/11>